



# 내일, 전국 조합원 총회

언론노조 총파업 70개 사업장 84.9% 압도적 찬성(KBS 85.8%)

조중동방송 광고직거래 저지해야 KBS 공공성 확보

내일(23일) 오전 11시 KBS본부 전국 비상 조합원 총회가 개최된다. 언론노조 총파업 찬반 투표를 압도적인 찬성률로 가결한 이후 총파업 일정을 공유하고, 2011년 임금협상 출정식도 가질 예정이다.

**이번 싸움은 결국 KBS의 싸움** 가을부터 시작될 조중동 방송이 광고를 직거래할 경우 언론계는 대혼탁, 대혼란에 빠질 것이고 중국에는 KBS이 공공성도 위협받고 오염될 것이다. 기사와 프로그램이 광고 거래의 대상이 될 우려가 현실이 된다. KBS가 남의 일 보듯 방관할 수 없는 시급하고 절박한 우리의 싸움이다. 사측도 이번 사안의 중대성을 인식하고 적극 대처하라.

내일(23일) 일정은 아래와 같다.

11:00 ... KBS본부 새 사무실 개소식 및 전국 조합원 총회 (연구관리동 및 신관 개념광장)

14:00 ... 언론노조 총파업 출정식 결함 (여의도)

## KBS본부 조합원 행동지침

1. 8월 23일 전국 조합원 긴급 총회에 참여한다.
2. 8월 23일 언론노조 총파업 출정식에 결함한다.
3. 8월 25일 언론노조 투쟁 일정과 저녁 문화제에 참여한다.

## 김인규 사장, 귀뚜라미 회장 기사 삭제 지시

취재부서에 직접 전화해 특정 내용 거론... 결국 삭제

김인규 사장이 일선 취재부서장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특정 기사 내용에 대해 불만을 표시했고 결국 그 기사가 삭제된 것으로 드러났다. 사실상 특정 기사를 삭제할 것을 지시한 것이어서 공영방송 사장으로서 자격을 스스로 저버린 행위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삭제된 기사 내용은 무상급식 주민투표와 관련된 정치적으로 매우 민감한 사안이었다.

8월18일 9시 뉴스는 톱뉴스와 두 번째 꼭지가 무상급식 주민투표와 관련된 내용이었다. 주민투표 부재자 투표가 시작된다는 내용이 과연 톱뉴스로서의 가치가 있는지는 따로 다루기로 하겠다. (관련기사 뒷면)

9시 뉴스에 두 번째 꼭지의 제목은 '투표 참여 대 거부, 날선 공방'으로 주민투표와 관련된 여러 가지 논란을 섞어 보도했다. 이 리포트에는 직원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주민투표를 독려한 '귀뚜라미 보일러' 최진민 회장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김인규 KBS사장



최진민 귀뚜라미 그룹 회장

### 사장 전화 한 통에 KBS 뉴스가 좌지우지

오후 7시 03분 이 기사는 아무런 문제없이 부장의 사인이 났고 취재기자는 제작에 들어갔다. 뉴스 편집이 한창인 오후 7시 30분 경, 김인규 사장이 보도국 사회부 김중진 부장에게 전화를 했다. 귀뚜라미 보일러 최진민 회장과 관련된 문장을 삭제할 것을 종용하는 내용이었다. 결국 9시 뉴스 리포트에는 최진민 회장 관련 내용이 삭제됐다. 최진민 회장은 대구TBC 최대주주이며, SBS 2대 주주이다.

### 담당부장, "사장은 기사에 대해 문의했을 뿐"

김중진 사회부장은 이에 대해 사장으로부터 전화가 온 것은 사실이지만, 기사에 대해서 '문의'를 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또 사장의 전화와는 별개로 김 부장 본인이 판단해 리포트 길이를 줄이기 위해 최진민 회장 관련 내용을 삭제했다고 주장했다.

### 김인규 사장, 공영방송 사장으로서 자격 없는 행태

사장이 특정 기사 내용에 대해 취재 부서에 직접 전화해 왈가왈부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일 뿐만 아니라 대단히 부적절하다. 사장의 '언급'을 단순한 '언급'으로 받아들일 간부들이 얼마나 되겠는가. 최진민 회장의 주민투표 독려 논란에 대한 기사 가치는 다르게 판단할 수 있지만 취재기자가 원고를 직접 작성하고 일선부서 부장이 사인을 낸 기사를 사장이 직접 삭제를 지시하는 것은 명백한 제작 자율성 침해다. 사장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따라서 9시 뉴스의 기사가 좌지우지 되는 치욕스러운 일이 벌어진 것이다.

사측이 그렇게 떠들어 대던 '제작 자율성 보장'을 김인규 사장은 정면으로 부정했다. 김인규 사장은 독립성을 생명으로 하는 공영방송의 사장의 자격을 스스로 버렸다. 김인규 사장은 더 이상 KBS를 망가뜨리지 말라. 김인규 사장은 직원들과 시청자들에게 즉시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라.

2011년 임금협상 출정식 및 공정방송 복원과

조중동방송 광고직거래 저지를 위한 KBS본부 조합원 비상총회

8월 23일 (화) 11:00 ~

연구관리동 1층 ▶ 신관 개념광장

공추위 주간보고서 18호 (8월 4째 주)

# KBS, 노골적인 '무상급식' 투표 독려

## MB 무상급식 부재자 투표가 9시뉴스 TOP

최근 서울 시내를 오가다보면 '무상급식 주민투표와 관련하여 찬반 구호를 적은 현수막들을 쉽게 볼 수 있다. 현수막 내용은 어떤 방식의 무상급식이 좋은가를 다루기보다 투표참여와 불참을 주장하는 선동적인 구호들이 대부분이다.

그런데 지난 18일, KBS를 대표한다는 9시 뉴스에서 첫 번째 소식, 이른바 '톱뉴스'로 대통령이 무상급식 부재자 투표한 게 방송됐다. '무상급식 주민투표'에 참여하는 것은 국민의 권리이자 의무라고 강조하는 대통령의 말도 그대로 전달됐다. 여기에서 사장으로 부터 직접

전화 압력을 받은 무상급식 찬반 갈등 리포트까지 이어 방송됐다. (관련기사 앞면)

이번 무상급식 주민투표에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졌던 사람이라면 이 톱뉴스가 왜 문제인지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 무상급식 투표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찬반 갈등의 핵심은 투표율이기 때문이다. '투표율 33.3%를 넘기느냐 아니면 저지하느냐를 놓고 찬반 양 진영이 사활을 건 싸움을 하고 있다. 이런 상황 속에 KBS 뉴스는 부재자 투표 시작을 톱뉴스로 배치해 투표 참여를 홍보하고 대통령 발언을 통해 투표 참여를 독려

한 것이다.

무상급식 주민투표율이 떨어질까 안달이 나 조금이라도 시민들에게 알려보려고 선거법마저 위반하며 1인 풋말 시위를 하는 오세훈 시장의 입장에서는 우리 'KBS 뉴스'는 구세주와도 같을 것이다. 서울 시청방송도 이렇게까지 할까 싶다.

뉴스가 그렇게도 없었나? '시중은행 가계대출 중단'이라는 생활과 밀접한 큰 뉴스도 있었고, 앞으로 6년 동안 국가권력의 한 축인 사법부를 이끌 수장이 사실상 내정됐다는 뉴스도 있었다. 다른 방송사는 이 같은 평범한(?) 뉴스가치 판단에 따라 저녁 메인뉴스가 편집 배치됐다. 유독 우리만이 '무상급식 주민투표' 띄우기에 나선 것이다.

특보 출신의 김인규 사장 취임 이후 KBS가 권력의 눈치를 보며 해야 할 뉴스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날이 갈수록 커져 가고 있다. 이젠 눈치를 보다보다 못해 아예 권력 앞에 발가벗은 채 었드린 느낌이다. 고대영 본부장, 이선재 보도국장, 윤준호 편집주간, 이현주 9시 뉴스 편집부장. 이들이 현재 권력에 먹살 잡힌 KBS 뉴스의 편집 책임자들임을 잊지 말자!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이게(투표가) 아주 큰 권리고 의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의사 표시를, 투표를 통해서 하자 이런 뜻으로 참여만 귀중.



시중은행 가계대출 전면 중단



양승태 전 대법관 지명

위 기사를 가운데 과연 톱뉴스의 가치가 있는 뉴스는 무엇일까. 상식적인 눈으로 판단해 보자.

# KBS, 85.8% 찬성 총파업 압도적 가결

언론노조 전체 찬성률 84.9%

공정방송 복원과 조중동방송 광고직거래 저지를 위한 언론노조 총파업이 KBS에서 85.8%라는 압도적 찬성률로 가결됐다.

언론노조 전체 총파업 찬반투표 결과 전체 112개 사업장(2011년 7월 기준 12개월 이상 조합비 미납 사업장 제외) 중 70개 사업장에서 총파업 찬반투표를 진행해, 투표율 75.4%, 찬성률 84.9%(EBS는 22일까지 투표 진행)의 찬성으로 언론노조 총파업이 가결됐다.

언론노조는 8월 19일 총파업 지침1호를 발표했다.

“언론노조 소속 전 조합원은 8월 23일 09시를 가해 총파업에 돌입하고 23일 14시 국회 앞으로 집결한다. 단, 한진중공업사태 등 민생현안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취재나 조중동방송 광고 직거래 금지를 위한 미디어법 제정과 관련한 최소인력은 제외한다.”

이번 언론노조 총파업의 주력은 지역 방송국과 종교 방송 등이 될 전망이다. KBS본부는 우선 23일 조합원 총회를 통해 언론노조 총파업 대오에 적극 합류할 예정이다. 언론노조는 8월 임시국회 기간 동안 파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 KBS 본부 투표 결과

투표 재적 : 1018명 (연수, 특파원, 휴직, 장기출장 등 사교자 제외)  
 ▶ 투표자 : 731명 ▶ 투표율 : 71.8%  
 ▶ 찬성 : 627표 ▶ 찬성률 : 85.8%  
 ▶ 반대 : 98표 ▶ 무효 : 6표

KBS본부 집들이에 초대합니다

## KBS본부가 동지를 틀었습니다

파업 이후 1년, 언론노조 KBS본부가 드디어 보금자리를 마련했습니다. 힘들었던 만큼 소중한 공간입니다. 모두들 오셔서 '내 집 마련'을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8월 23일 화 11:00  
 KBS 연구동 관리동 1층  
 간단한 점심을 준비했습니다

**언론노조 KBS본부**